

하라이(祓い)의 일본민속 고찰*

- 세시풍속과 야쿠도시(厄年) 의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조규현**
chokyuheon@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세시풍속 속의 액년(厄年)의례가 의미하는 것 |
| 2. 의례음식(儀禮飲食)으로 본 세시풍속 | 3.1 액년과 도시이와이(年祝い) |
| 2.1 조상숭배 중시의 한국민속 | 3.2 액막이와 복(福)의 동질성 |
| 2.2 하라이 중시의 일본민속 | 3.3 세시풍속 속의 액년의례 |
| | 4. 나오며 |

主題語: 하라이(harai), 재액(disasters), 세시풍속(sekku), 인생의례(lifetime ceremony), 액년(yakudosi)

1. 들어가며

하라이(祓い)란 일본사회에서 부정을 없애는 정화의식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도 통용되는 일본어이다. 그런데 이 하라이는 단순한 정화의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정(不淨)을 나타내는 일본어인 케가레(穢れ) 관념을 전제로 성립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인의 민속적 생활 속에서 케가레는 재앙을 야기하는 근원이며 신사와 절 등에서는 이 케가레를 제거하기 위한 하라이 의례(儀禮)가 중시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하라이’가 일본민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세시풍속’과 ‘일생의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세시풍속’과 ‘일생의례’는 민속적 주기(週期)로서 각각 일년(一年)과 인생(人生)이라는 라이프사이클 속에서 어떠한 의례가 행해지는 날을 중시한 민속학적 개념(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일본민속학의 학문적 개념의 성립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1875-1962)의 이론적 배경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¹⁾ 여기에서 야나기타 구니오의 이론적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일어교육과 조교수

배경 이라는 것은 <도작농경-조령신앙-산중타계관>의 연속성에 의한 이른바 일본문화일원론(日本文化一元論)을 말한다. 세시풍속은 ‘도작농경(稻作農耕)’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개념이고, 일생의례는 ‘조령신앙(祖靈信仰)’을 기반을 두고 성립된 개념이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은 ‘산중타계관(山中他界觀)’에 의해 연결됨으로써 연속성을 갖게 된다.

이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죽으면 아주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간다(산중타계관). 산속에서 일본인 조상의 영혼은 하나의 집합체로서 ‘신(神)’=‘조령’이 된다. 따라서 일본인의 조상은 ‘산신’이자 ‘조령’이 되는 것이다(조령신앙). ‘조령=산신’이 일본인의 세시풍속의 여러 날에 그들의 풍년을 위해 ‘논산’의 성격으로 후손들에게 내려와 복을 준다는 것이다(논신과 산신의 去來신앙). 즉 일본민속학의 대표적인 ‘세시풍속’과 ‘일생의례’는 일본인이 죽어서 ‘조령=산신’이 되고 ‘논산’의 성격으로 일본인의 농경생활에 풍요를 준다는 ‘일본문화일원론’을 전제로 하여 그 개념 틀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하라이(祓い)’의 민속을 기반으로 세시풍속과 일생의례의 두 개념의 관계성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세시풍속이라고 하면 농경주기를 배경으로 일년주기의 암묵적 전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세시풍속 속에서 부정(不淨)을 의미하는 케가레(ケガレ)가 태풍, 가뭄 등과 같은 풍작에 대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병(病), 사고(事故) 등과 같은 개인의 건강과 삶에 대한 재앙과 관계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1년 농경주기와의 차별성을 우선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일생의례 중에서 재액(災厄) 예방 및 퇴치와 깊이 관계하는 액년(厄年; 야쿠도시)에 주목한다. 특히 액년의례가 세쓰분(節分)과 정월대보름(小正月)과 같은 세시풍속 속에서 마쓰리(祭り)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2. 의례음식(儀禮飲食)으로 본 세시풍속

2.1 조상숭배의 한국민속

일본의 세시풍속은 하라이 의례와 관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의례음식을 통해서 한국민속과의 차이점도 고려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국과 일본의 세시풍속

1) 줄고(2010)「야나기타 민속학의 일본문화일원론 재고: 사령신앙과 재앙신을 중심으로」『日本近代學研究』29輯 참조

2) 福田アジオ(1991)『柳田國男の民俗学』吉川弘文館, pp.247-248 참조

은 쌀 문화권의 특징을 나타내듯이 공통적으로 떡류가 가장 많다. 한국은 명절음식으로 가래떡, 인절미, 송편, 화전, 시루떡, 단오병, 도행명 등을 주로 만들어 먹는다. 한국의 의례음식으로 떡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햅쌀을 기본으로하여 지역과 계절에 생산되는 재료를 섞어 만든다.³⁾ 한편 일본은 경병 등 찰쌀로 만들어 떡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 달리 찰벼문화권의 성격이 농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떡을 먹는 명절은 『동국세시기』에서 사대 명절이라고 칭하는 설, 한식, 단오, 추석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중에서 설, 한식, 추석이 단오보다 더 중요한 명절로 인식되는 것은 효를 근간에 둔 조상숭배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이 『동국세시기』에 누락된 것은 조선시대 유교 중심 사회 속에서 설 명절이 중요시하게 되면서 정월대보름이 이전보다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떡을 의례음식으로 정중하게 준비하는 날은 다름 아닌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한 명절인 것이다.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세시풍속의 대표적인 의례음식을 확인해보기로 하자.

- 설날: 설날에 대접하는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는데 떡국이 대표적이다. 떡국에는 흰떡을 얇파하게 썰어가듯 나이를 한 살씩 먹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 정월대보름: 약밥을 먹는다. 새벽에 찬 청주 한 잔을 마시는데 이를 ‘귀밝이술’ 이라고 한다.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날 새벽에 낄밤이나 호두, 은행 등을 깨물어 먹는데 이것을 ‘부럼’ 이라 한다. 이것을 치아와 건강을 바라는 주술행위로 보기도 한다.
- 한식: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의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를 명절제사라 한다.
- 단오: 수릿날이라 한다. 쑥잎을 따다가 쑥떡을 만들어 먹는다. 예로부터 이날은 건강을 위해 쑥떡을 먹어 왔으며 병의 액땀을 위해 창포물에 목욕도 하고 여인들은 머리로 감고 창포 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기도 했다. 신체변화의 대처법이다.
- 추석: 닭고기, 막걸리 등으로 모든 이웃들과 실컷 먹고 즐긴다. 햅쌀로 송편을 빚어 먹었고 찰쌀가루로 인절미를 만들어 먹었다.
- 동지: 이날은 아세(巫歲)라 했는데 다음 해가 되는 날이라는 뜻이다. 동지 팔죽을 쑤는데 찰쌀가루로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팔죽에 넣어 제사도 지내고 먹기도 한다. 팔죽을 문짝에 뿌려 액땀을 한다. 잡귀는 붉은색을 싫어한다는 속설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⁴⁾

3) 신미경·정희정(2008)「한·중·일 세시풍속과 세시음식에 대한 비교」『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18권 3호, pp.15-16

4) 장명희(1985)『한국과 일본의 세시풍속과 세시식의 비교연구』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기는 하지만 세시풍속의 의례음식을 살펴보았다. 과연 한국의 명절이 1년 주기로 균등하게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을까. 의례음식을 보면 1년 주기 속에 유교적 성격이 농후한 <설·한식·추석>과 유교적 성격이 약한 <대보름·단오·동지>로 구분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은 세시풍속에서 ‘의례음식 / 방식 / (제사)대상 / 목적’의 네 가지에 주목하여 분류한 것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각각의 날의 ‘음복’ 여부에 따라 ‘조상을 모신다’ 아니면 ‘잡귀를 쫓아 낸다’와 같이 그 (제사)대상이 확실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설날과 추석에 단순히 떡국과 송편을 먹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혈연관계의 친척들이 ‘효’의 뜻을 담아 자신의 조상을 차례지내는 차원에서 음복을 하는 것이다. 한편 <대보름·단오·동지>는 조상과의 음복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보름에는 ‘부럼’을 먹고 치아건강 등을 기원한다. 단오에는 ‘쑥떡’을 먹음으로써 5월의 전염병 등에 대비한다고 한다. 동지에는 팔죽을 먹고 문 앞에 뿌린다.

즉 의례음식으로 기준으로 우리 세시풍속을 보면 <설·한식·추석>이 ‘조상’에 대한 음복 의례로 행해지고, <대보름·단오·동지>는 ‘잡귀(악귀)’에 대한 퇴치의례 특히 부럼, 쑥떡, 팔죽 등을 먹음으로써 잡귀를 이겨내고자 하는 민간신앙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중 ‘건강기원’과 연결되는 것은 ‘조상’과의 ‘음복’이 아니라 부럼, 쑥떡, 팔죽 등을 먹는 행동 자체인 것이다.

<표 1> 한국 세시풍속과 의례음식

세시풍속	설 · 한식 · 추석	대보름 · 단오 · 동지
의례음식	떡국, 술, 과일 등, 송편	약밥 · 부럼, 쑥떡, 팔죽
방식	음복	먹기, 뿌리기
(제사)대상	조상	잡귀(雜鬼) 퇴치
목적	효	액막이(액땀), 건강기원

2.2 하라이의 일본민속

일본의 대표적 세시풍속인 쇼가쓰(正月), 정월대보름(小正月), 세쓰분(節分), 히나마쓰리(雛祭り), 단고노셋쿠(端午の節句), 오분(お盆)을 의례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쇼가쓰(正月): 12월 31일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도시코시소배(年越し蕎麦)를 먹는

- 다. 일본식 떡국인 오조니(お雑煮)와 찬합요리인 오세치요리(おせち料理)를 먹는다.
- 정월대보름(小正月): 팥죽(小豆粥)과 같은 붉은 색 음식을 주로 먹는다. 쌀, 보리, 피, 팥 등 일곱가지 곡물을 섞어서 쑨 죽인 나나쿠사가유(七草がゆ)를 먹는다. 이것을 먹음으로써 한 해의 무병식재(無病息災)를 기원했다.
 - 세쓰분(節分): 세쓰분의 대표 의례식은 쿱이다. “잡귀는 몰려가고 복신은 들어오라”라고 외치면서 마메마키(豆まき; 콩뿌리기)를 한다. 간토(關東)지역은 주로 밭농사 작물(토란, 무, 우엉, 두부, 소바, 보리 밥 등)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간사이(關西)에서는 주로 정어리를 먹었다. 최근에는 세쓰분에 먹는 후토마키 스시(太巻き寿司)를 에호마키(恵方巻き)라 해서 즐겨먹는다.
 - 히나마쓰리(雛祭り): 우리의 무지개떡처럼 흰색과 분홍색이 3단으로 쌓여져 있는 히시모치(ひしもち)와 흰색과 분홍색으로 된 방울 같은 과자인 히나아라레(ひなあられ)를 먹는다. 사쿠라모치(桜餅)는 간사이(關西)지방에서 주로 먹던 것인데 안에는 팥소가 들어있는 찹쌀떡이다.
 - 단고노셋쿠(端午の節句): 지마키(粽)라는 띠나 대나무 잎으로 말아서 만든 찹떡을 먹는다.
 - 오본(お盆): 조상에게 바치는 공물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오본기간 동안 똑같은 공물을 바치는 것은 피함. 13일에는 경단, 14일에는 오하기(멧쌀과 찹쌀을 섞어 찌서 가볍게 찢 후 동그랗게 빚어 팥소나 콩가루를 묻혀 만든 떡), 15일에는 소면, 16일에는 경단 등 하루하루 품목을 달리하며 바치는 집도 있다.⁵⁾

<표 2> 일본 세시풍속과 의례음식

세시풍속	오본	쇼가쓰, 정월대보름, 세쓰분, 히나마쓰리, 단고노셋쿠,
의례음식	쌀, 물, 경단, 오하기 등	도시코시소바, 오조니, 오세치요리 팥죽, 나나쿠사가유 콩, 정어리, 에호마키 히시모치, 지마키 등
방식	음복	먹기
(제사)대상	조상	잡귀(雜鬼) 퇴치
목적	효(불교식)	액막이(액땀), 건강기원

5) 和歌森太郎(1959)『年中行事』至文堂, pp.50-51 참조

표2는 표1과 마찬가지로 일본 세시풍속 내용을 ‘의례음식 / 방식 / (제사)대상 / 목적’의 네 가지에 주목하여 분류한 것이다.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일본의 경우 우리에게 비해 조상제사 빈도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오분(お盆)만이 조상을 모시는 날이다. 오분에는 분다나(盆棚)라는 제단을 만들어 조상님에 음식을 바치고 그것을 먹는다.

한편 일본은 우리에게 비하여 잡귀퇴치 및 재액(災厄) 예방의 성격을 갖는 날이 많다. 먼저 세쓰분과 정월대보름이 콩 뿌리기와 팔죽을 먹는다는 점에서 가장 잡귀퇴치의 성격이 뚜렷하다. 세쓰분에는 콩으로 잡귀를 공격하고, 정월대보름에 팔죽을 먹는 것이 잡귀가 붉은 색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우리와 매우 비슷하다. 또한 일본의 대표명절인 쇼가쓰에는 토시코시소바(年越しそば), 오세치요리(お節料理)와 조니(雑煮)라고 하는 일본식 떡국을 먹는다. 12월 31일에 먹는 ‘토시코시 소바’는 국수의 길 이처럼 길게 장수하길 바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면이 가늘어 쉽게 끊어지는 것처럼 소바를 먹고 올 해의 액운을 끊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오세치요리는 ‘오세치’(お節)라고도 부르며 설날에 먹는 것은 대체로 3단이나 4단의 찬합에 담긴 조림요리를 지칭한다.⁶⁾ 찬합에 담은 음식과 방식 등은 지방과 가정에 따라 다양하지만 경사스러운 의미의 음식을 찬합에 가득 채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각각의 음식에는 예로부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등이 담겨져 있다.⁷⁾ 히나마쓰리와 단고노셋쿠도 각각 의례음식을 먹음으로써 남녀 아이의 무병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쓰분과 정월대보름은 ‘잡귀퇴치’, 쇼가쓰는 ‘장수’, ‘액막이’, 한해의 건강 및 행복, 히나마쓰리와 단고노셋쿠는 ‘아이의 건강기원’과 같이 각각 그날의 목적에 따라 특정 의례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날들에 보이는 기본적인 성격은 ‘잡귀’를 퇴치하는 하라이(액막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결국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세시풍속에는 조상제사로서의 성격보다는 하라이(액막이)를 중시하는 특성이 매우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6) 원래는 조정의 연회인 ‘세치에’(節会)에서 천황이 신하들에게 베푼 요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7) 청어 알은 다산(多産), 자손 번영을 의미한다. 연근은 눈이 많으므로 미래의 길이 잘 보여 운수대통 하길 기원한다. 새우는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 노인처럼 보인다고 하여 장수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마는 일본어로 곤부(昆布)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쁘다의 요로코부(喜ぶ)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시마를 먹으면 올 한해 기쁜 일이 많다고 말한다. 검은 콩은 콩이 일본어로 마메이므로 같은 발음의 마메(まめ:근면)한 생활을 기원한다.

3. 세시풍속 속의 액년(厄年) 의례가 의미하는 것

3.1 액년(厄年)과 도시이와이(年祝い)

일본에서는 일생 중에 액년(厄年; 야쿠도시)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삼재(三災)와 비슷한 것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액년을 맞이하게 된 나이에는 재액에 만나기 쉽기 때문에 특별히 몸을 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25세, 42세, 61세를 여성은 19세, 33세, 37세를 액년 연령으로 보는 곳이 많다.

특히 남자 42세와 여자의 33세는 대액(大厄)이나 본액(本厄)이라고 해서 흉사(凶事)나 재난 등에 조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충분한 경계를 해야만 한다고 한다. 이 42세와 33세가 대액이 된 배경은 일본어의 어조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42는 일본어로 ‘시니’인데 이것은 ‘死(시니, 죽음으로)’를 연상시키고, 33은 ‘산산’인데 이것은 ‘散々(산잔, 엉망진창)’과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액을 전후로 전액(前厄), 후액(後厄)이 있어 3년간을 특별히 조심하는데 과거에는 이 연령대에 집의 신축이나 결혼과 같은 것을 집안행사를 삼가는 집도 있었다고 한다. 아무튼 현재도 이 액년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여기에는 현대적인 해석이 새롭게 더해져, 남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책임이 무거워지는 시기로 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 등이 쌓이고, 여성의 경우는 육아 등 주부로서 상당히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뜻밖의 사고나 부상, 병 등을 조심하자는 것을 환기하는 취지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액년은 지역에 따라 그 연령이 다소 다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나이 뿐 아니라 3세, 5세, 7세, 13세, 61세, 77세, 88세 등을 액년으로 보는 지역도 있다.⁸⁾ 그리고 이러한 액년에 하는 연령의례는 원래 재액(災厄)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액막이 의례이지만, 한편 그 연령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연축행사(年祝行事)로서 행해지는 예도 많다. 예컨대 일본의 전형적인 어린이 연령 축하 행사인 시치고산(七五三)이 그러하다. 시치고산은 매해 11월 15일에 3세, 5세, 7세를 맞이한 아이에게 새 옷(晴れ着)을 입히고 우지가미 신사(氏神社) 등에 데리고 가 참배를 해 그 나이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관습이다. 이 시치고산은 원래 간토(關東) 및 동일본(東日本) 중심의 습속이어서 간사이(關西) 및 서일본(西日本)의 각지에서는 그다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편 간사이의 교토(京都)등에서는 시치고산을 대신해 세는 나이로 13세에 행하는 쥬산마이리(十三参り)가 주요한 어린이의 연

8) 郷田洋文(1959)「厄年・年祝い」『日本民俗体系4』平凡社 참조

령 기념일이어서 이날 신사참배 등을 비롯해 성대한 행사가 행해져 왔다.

일본에서는 특별히 노령이 되었음을 축하 하는 연령을 도시이와이(年祝い)라고 부른다. 우선 세는나이 61세의 환갑(還曆)이 있다. 다음으로 70세의 고희(古稀), 77세의 희수(喜壽), 80세의 산수(傘壽), 81세의 반수(半壽)가 있으며, 상당히 중시되어온 88세의 미수(米壽)와 90세의 졸수(卒壽)와 99세의 백수(白壽) 등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1세, 77세, 88세와 같은 노령과 장수를 축하하여 잔치를 하는 바로 이 나이를 액년으로 보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3세, 5세, 7세 시치고산의 어린이 연령 기념일도 61세, 77세, 88세의 노령 기념일과 같은 인생의례의 의미가 단순한 축하의 의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액년(厄年)과 일맥상통하는 성격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액년과 연령축하 행사의 관련성은 역사적 자료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도시이와이 같은 노령축하 전통은 고대부터 있어왔다. 740년에 쇼무천황(聖武天皇)이 40세 축하를 한 기록이 있으며(『東大寺要錄』), 926년에 우다법황(宇多法皇)이 60세를 축하한 것(『日本紀略』), 1112년에 백하법황(白河法皇)의 60세를 축하한 것(『白練抄』), 1186년에 후백하법황(後白河法皇)등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부터 40세와 60세의 축하연(祝賀宴)이 귀족 사이에서 성행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에도시대(江戸時代)에 각지의 풍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야시로 히로카타(屋代弘賢)의 『諸國風俗文狀』(文化14, 1817)에는 「老人いゝはひ事」이라는 질문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40세부터 10년 마다 축하하는 것이 보통인데 61세, 88세 등 축하하는 날이 여럿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42세를 축하하며 아버지 때부터 50세 60세 10년마다 축하하였다’(「陸奥国白河領風俗問狀答」) ‘40세부터 10년마다 축하하는 것이 드물지 않게 있었다. 80세, 90세, 42세, 61세, 88세 등도 축하한다’(「若狭国小兵領風俗問狀答」) 답변이 남겨져 있다.⁹⁾

이상의 내용에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諸國風俗文狀』에서 보이는 질문으로 노령 축하 의례가 ‘40세’부터 ‘10살’ 마다 있다고 한 점이다. 고대 천황과 귀족의 축하연도 40세와 60세라는 점에서 과거에는 40대 부터가 노령으로 보는 인식을 알 수 있다. 실제로

9) 立川昭二(1995)『江戸 老いの文化』筑摩書房, 즉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노령의 연령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40세를 초노(初老)라고 하여 노령에 진입하는 인식이 있었으며 50세, 60세, 70세 등과 같이 십진법으로 10살 마다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는 42세와 같은 전형적인 액년을 하나의 노년연령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는 일본에서 환갑이 세는 나이로 61세인데 이 나이가 자신의 지간(支干)이 되돌아 온 연령으로 12년 마다 구분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환갑을 맞이하면 은거(隱居)한다는 말이 있는데 환갑 축하에는 이제까지 인생에 한 획을 긋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인생을 재출발하는 의미도 내포한다. 또한 이러한 干支에 근거해 12년마다 돌아오는 연령인 13, 25, 37, 49, 61, 73, 85, 99살을 야쿠도시로 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각지에서 40세를 초노(初老) 라고 해서 노령에 진입한 연령으로 보는 지역이 적지 않았다. 즉 현재와 같은 100세 시대, 80대 평균연령 등은 우리나라 일본이나 지극히 최근의 일로 평균수명이 짧은 과거에는 40대 부터를 노령으로 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陸奥国白河領風俗問狀答』과 『若狭国小兵領風俗問狀答』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전형적인 액년 나이인 42세를 전형적인 노령 축하 나이인 61세, 88세와 동일한 노령 축하 연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61세, 77세, 88세를 액년의 나이로 보는 지역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민속적 세계에서는 액년과 노령 축하 연령이 거의 동일한 성격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령 축하의례의 의미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액년의 의미에서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3.2 액막이(厄払い)와 복(福)의 동질성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나가이(神奈川県横須賀市長井)에서는 액년(厄年)을 맞이한 사람이 12월 31일에 좁쌀을 넣은 떡을 마을에 있는 신사에 바치고 난 뒤 떡을 길가에 버렸다고 한다. 후쿠오카현 치쿠시노시 야마에(福岡県筑紫野市山家)의 각 집에서는 액년을 맞이한 남자가 떡과 술, 안주를 함께 새벽 전에 길모퉁이에 바치면 액운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버려진 떡을 가지고 가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다고 전해져왔다.¹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액막이를 함에 있어 떡을 신에게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떡을 던져 버리거나 또는 그 떡을 다른 사람이 가져감으로써 액운이 떨어져나간다는 관념이 보인다. 즉 떡이 단순한 신에 대한 공물(供物)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액운의 근원인 케가레를 싣는 빙의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이것에 액운을 실어 던져버림으로써 액막이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타인의 케가레가 갖든 떡을 줌의 것도 액막이가 된다고 하는 것일까. 일본민속에는 말의 대변을 밟으면 발이 빨라진다고, 소의 대변을 밟으면 힘이 세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즉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일이 어떠한 의례나 행동을 통해 다른 맥락에서 도리어 복을 맞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재앙의 근원인 ‘케가레’ 가치가 ‘복’의 가치로 역전되는 민속적 메카니즘의 존재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장례식에 참가한 조문객에게 소금을 나누어주는데 우리도 이러한 풍습이 과거에 있었지만 이는 소금을 뿌려 귀신이나 부정을 떨쳐내고 귀가하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사자

10) 石井研士(2009)『日本人の一年と一生: 変わりゆく日本人の心性』春秋社, pp.187-189

의례(死者儀禮)는 기본적으로 죽음과 관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케가레를 유발하기 쉬운 부정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었다. 전통적 사자의례(死者儀禮)인 장송의례(野辺送り)에 동전과 관련된 의식으로 동전던지기(뿌리기)가 있었다. 이것은 이미 1950년대 이전에 사라진 풍습인데 장송의례의 꽃바구니에 10엔 동전 등을 가득 넣은 후 장례행렬 도중에 바구니를 흔들면서 동전이 여기저기 떨어지게 한다. 사이타마현(埼玉県) 각지에서는 이것을 동전 던지기(投げ銭), 동전 뿌리기(撒き銭)라고 했다. 본래 장송의례는 전통사회에서 죽음을 추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액을 유발하는 케가레 관념과도 관계하기 때문에 동전던지기는 액막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뿌려진 동전을 아이들이 줍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동전을 옷에 붙이면 운이 좋아진다고도 하였다.¹¹⁾ 이와 같이 장송의례에서 뿌려진 동전은 앞에서 본 떡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액년의 떡과 장송의례의 동전은 케가레(부정)와 관계하며 이 부정을 실어 던지기 위한 야쿠하라이(액막이)의 매개체인 것이다. 이렇게 던지고 버려지는 의식을 거친 동전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더 이상 ‘케가레’가 아닌 ‘복’으로 전화(轉化)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전에 의한 야쿠하라이 민속의 연장선상에서 장수전(長壽銭)이라는 풍습이 있다. 앞의 장송의례에서 ‘동전던지기’가 전전(戰前)에 행해진 것이라면 이것은 전후(戰後)인 1950년대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군마현(群馬県), 사이타마현(埼玉県) 등에서 주로 90세 이상의 장수한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장수전’이라는 이름으로 동전을 조문객에게 나누어 준다. 보통 장의사가 준비하는데 이 ‘장수전’ 봉투에는 5엔, 50엔, 500엔 등이 5엔 단위로 들어있는데 이것은 5엔이 일본어로 고엔(ご縁) 즉 인연이라는 단어와 같은 발음이기 때문이다.¹²⁾ 즉 장수한 사람과의 인연으로 좋은 운수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만 103세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경우도 ‘장수전’ 봉투를 나누어 준다고 한다. 장례식 당일 뿐 아니라 49제 법요에도 나누어준다. 이렇듯 장수전을 나누어주는 것은 장수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천수를 누린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수전이 마치 부적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¹³⁾

이렇게 보면 전전의 ‘동전뿌리기’와 전후의 ‘장수전’은 양자 모두 동전 및 장례문화와 관계한다. ‘동전뿌리기’는 뿌리기라는 행위로 액운을 떨쳐내고 그 액운이 제거된 동전을 가지게 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액막이’를 하게 된다. ‘장수전’은 장수한 사람의 동전을 받아 그 동전을 지니고 있으면 것처럼 될 수 있게 된다. 즉 양자 모두 동전을 가지고 가면 ‘액막이’든

11) 宮田登(2006)『冠婚葬祭』岩波書店, pp.30-34

12) 新谷尚紀『民俗学がわかる事典』日本実業出版社 참조

13) 橋春夫(1999)「長壽銭の習俗:長壽銭の一面」『群馬文化』第25号 참조

‘장수’ 든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소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3.3 세시풍속 속 야쿠도시: 마쓰리의 주역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남자 42세는 대액(大厄) 또는 본액(本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42세를 초노(初老)라고 하여 노령에 진입하는 나이로 본 지역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남성 42세라는 것은 어떠한 연유에서 대액(大厄)이면서 초노(初老)로 인식되었던 것일까. 특히 42세가 대액으로 인식되어져 온 배경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4라는 숫자가 죽을 사(死)를 연상시킨다는 점과 42(시니)가 ‘死(시니, 죽음으로)’라는 혼독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특히 죽음과 직접 관계할 수 있는 병원 등에서는 4층, 4호실, 44호실 뿐 아니라 ‘죽음으로’인 시니(42)와 연결되는 번호인 42번, 4층 2호실, 4002호실과 같은 번호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종의 숫자금기와 관련하여 1713년의 문헌인 『和漢三才圖會』에도 보일 정도로 오랫동안 전해져 온 말과 풍습이 있다. ‘42세의 2살 아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42에 2를 더하면 44(四四:시시)가 되기 때문에 ‘死(시)에 死(시)가 더해진다’고 해서 42살에 2살 아이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41살이나 42세에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태어난 영아를 삼태기 속에 넣어 일단 버리는 시늉을 한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주워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주워온다. 이렇게 하면 주워온 사람과 버린 아이 사이에 임의의 부자관계가 생겨 평생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죽음이라는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의 하나로 세쓰분(節分)이 있다. 세쓰분은 원래 절기가 바뀌는 분기점으로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의 전날에 모두 적용되는 말이지만, 음력에서는 봄이 1년의 시작¹⁴⁾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입춘 전날을 보다 특별히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입춘(立春) 전날(2월 3일 경)만이 세쓰분을 의미하는 날로 정착되었다. 이 날은 마메마키(豆まき)라고 해서 “귀신은 밖으로, 복은 안으로”(鬼は外, 福は内)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집 안팎에 콩을 뿌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세쓰분은 상당히 중시되는 세시풍속이어서 전국 각지 곳곳의 집 뿐 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콩을 뿌리면서 성대하게 액막이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세쓰분에 액막이 행사를 하는 발상지로 유명한 요시다 신사에서는 세쓰분 전날인 2월 2일의 역신제(疫神祭)를 시작으로 2월 3일 대제(大祭), 2월 4일 세쓰분 후일제(後日祭)

14) 음력에서 세쓰분은 봄이라는 신년을 맞이하는 날을 의미함. ‘입춘으로 한 살 나이를 먹는다’, ‘입춘이 백성의 정월’ 등의 표현이 있다.

까지 3일간 행사가 지속된다. 또한 해마다 반드시 매스컴에 소개되는 나리타산(成田山) 신쇼지(新勝寺)의 세쓰분 행사 있다. 신쇼지에서는 그해 NHK 대하드라마 출연자와 스모 챔피언인 요코즈나가 참석하여 콩을 뿌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듯 세쓰분은 ‘마메마키’라는 콩뿌리기 풍습이 매우 중요한데 시가현 구사즈시(滋賀県草津市)에 위치한 타치기 신사(立木神社)의 세쓰분 행사에서는 42세의 남자가 콩뿌리기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0년 2월 8일 자에 이에 대한 기사가 있어 다소 길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타치기신사 주변을 걷는다 (세쓰분 대역의 등장무대 / 계승되는 지역의 중요한 역할)

구 도카이도에 자리 잡고 있는 평온한 신사는 세쓰분인 3일이 되면 확 변한다. 경내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열기에 타오르듯 모닥불이 타오른다.

오후 3시가 지난 시간. 신사 배전(拜殿) 주위에 예복을 입은 남자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올해 42세로 액년을 맞은 남자들이다. 손에는 떡과 동전, 한 되 수북이 담은 콩을 들고 있다.

“잡귀는 물러가고 복신을 들어오라.” 신관의 소리에 맞추어 남자들은 들떠서 떡을 던진다. 대역이 긴 해에만 할 수 있는 인생에 한 번뿐인 무대이다. 떡을 뿌려 복을 나눈다. “어릴 때부터 쪽 복을 받는 쪽 이었다. 불가사의한 기분이다.” 오후 8시 30분, 떡 7천 개, 동전 4천 개, 콩 2천 개 뿌리기를 끝낸 남자들이 흥분한 듯이 입을 모았다.

남자들은 지난 해 여름부터 화려한 무대의 준비를 시작했다. “내년은 자네들 차례다. 잘 부탁한다.” 중요한 임무를 끝낸 남자들이 내년에 액년이 되어 행사를 맡게 되는 남자에게 말을 전한다. 작년에는 자전거 가게 집 아들에게서 술집 아들에게로 축제 준비에 관한 비법이 담긴 책이 인계되었다. 마침내 1969년도에 태어난 동급생 ‘닭띠 · 개띠 모임’ 대표 기시모토 요시히사씨(40)는 “이렇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음 대에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 한다. 배전아래에서 아버지의 늙은 모습을 지켜본 장녀 아치카(9), 차녀 미호시(6)는 “오늘 아버지 모습은 평소보다 멋있었다.”고 말한다. 이 축제는 머지않아 아이들에게로 계승되어 갈 것이다.

(이하생략)

<아사히신문 2010년 2월 8일>

위의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타치기신사의 세쓰분 행사(節分祭)는 마을의 성대한 축제로 치루어 진다. 그리고 해마다 그해 42세가 된 남자들만이 “잡귀는 물러가고 복신은 들어오라”는 외침과 함께 떡, 동전, 콩을 마을주민들에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대액(大厄)의 연령이기에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부정인 케가레를 제거해야할 나이이다. 따라서 이러한 떡, 동전, 콩 뿌리기 의식을 통해 액막이를 하는 것

이다.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떡, 동전, 콩은 마을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앞에서 본 케가레 가치가 ‘복’으로 바뀌는 관념이 여기 타치기 신사 세츠분 행사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불 축제의 하나로 나가노현(長野縣) 시모타카이군(下高井郡) 노자와 온천(野沢温泉)의 불 축제인 도소진마쓰리(道祖神祭り)¹⁵⁾가 있다. 돈도야키로 불리는 불축제로 행해지는 이 도소진마쓰리는 정월대보름(小正月)



<사진 1> 타치기신사의 세쓰분제(節分祭)

(<http://www.tatikijinja.net/images/event3.jpg>)

기간인 1월 13일부터 ~ 15일까지 3일간 치루어 지는 축제이다. 연말부터 정초까지 집안 곳곳에 장식한 장식물 등을 모아 불태우는데 이것을 하면 새로운 한 해가 무병식재(無病息災) 한다고 믿었다. 정월대보름에 이와 유사한 불축제는 일본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노자와 온천의 이 도소진마쓰리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성대한 축제이다. 그런데 이 축제에서는 42세, 25세의 액년 남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매년 마을의 밤나무 다섯 개를 잘라서 축제의 제단(祭壇)을 만든다. 그리고 축제 전반부와 후반부에 격렬한 불꽃 공방전(攻防戰)을 벌여지는데 이 들 액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제단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축제에 사용하는 불은 민숙 노자와(民宿野沢)라는 온천 료칸(旅館)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액년의 연령 대표와 그 동료들이 불씨를 받으러 간다. 이 곳에서는 우선 도소진에게 경건한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서로 술잔을 주고받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한 시간을 즐긴 다음 부싷돌로 불을 일으켜 햇불로 옮긴다. 제단이 있는 회장에 옮겨진 불을 종자불로 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 햇불을 만든다. 그리고 2시간 정도 불의 공방전이 펼쳐진다. 액년의 남자와 마을 청년들 사이에 2시간에 걸친 격렬한 공방전이 끝나면 제단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다. 불이 밑에서부터 상부로 타오르며 첫등룽(初燈籠)도 타면 이윽고 불 축제는 클라이막스를 맞이한다.

보통 일본에서는 액년에 신사나 사찰에 참배하여 액막이를 한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액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을 축제에서 중책에 선발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 예를 든 것 이외에도 신사마쓰리(祭り)에서 가장 중요한 미코시(神輿)라는 가마를 짊어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적극적으로 신에 접근하고 봉헌함으로써 신의 힘을 통해

15) 長野市立博物館(編)(1994)『まつるふさぐもやす一道祖神祈りとかたち』長野市立博物館 참조



<사진 2> 노자와온천 도조신

마쓰리의 광고지

(<http://blog.wakagiri.jp/?eid=985028>)

액년의 위기를 잘 넘기겠다는 의례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의례가 단순한 의례가 아닌 마을축제로 행해진다는 점이다. 즉 앞에서 본 세쓰분, 도소진마쓰리에서 42세 액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축제의 주역을 맡음으로서 오히려 경사스러운 존재가 된다. 즉 마을축제라는 공적행사에서 중요 직책을 담당하는 연령이 되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짧았던 전통사회에서 40대는 지금과 중년이라기 보다는 노령에 진입하는 세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령에 들어선 기준으로 대액(大厄)인 42세가 이 초노(初老)로 칭해졌던 것을 아니었을까. 대액에 성대한 축제를 통해 액막이를 하지만, 그들은 이 축제를 통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존재가 된다. 대액(大厄)의 액막이와 초노(初老)의 노령 축하의 양의성이 축제의 주역이라는 역할로 보여 지는 것이다.

4. 나오며

본고에서는 하라이의례가 일본민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 기존의 민속학적 개념에 의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생의례 중 야쿠도시와 세시풍속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일본 세시풍속이 우리와 다른 점은 잡귀와 재액(災厄)의 퇴치를 중시하는 의례 빈도가 높으며 이러한 의례가 현재까지도 집, 절, 신사 등에서 중시되는 데에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세쓰분의 ‘세쓰분제’와 정월대보름의 ‘도소진마쓰리’를 통해 세시풍속 속에 액년(厄年) 의례가 행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각각의 케가레 관념을 전제로 액년의 하라이(액막이) 의례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마을의 축제로서 이들 42세 액년을 축하하는 점에서 ‘액년’이 ‘연령축하’ 행사로서의 성격도 지니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듯 ‘액년’의 인생의례가 세시풍속의 일환으로 행해한다는 점은 세시풍속이 1년 주기의 농경의례로서 만이 아니라, 농경과 무관한 건강기원 성격을 뚜렷하게 내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민속에서 ‘하라이’에 대한 검토는 야나기타 구니오의 <논신과 산신의 거래신앙>에서 시작된 농경의례로서의 세시풍속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 노성환(2011)「日本の 厄年民俗에 관한 研究 : 山口県 萩市 大島の 年祝祭儀를 中心으로」『일어일문학연구』제 79집 2권
- 신미경·정희정(2008)「한·중·일 세시풍속과 세시음식에 대한 비교」『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18권 3호
- 장명희(1985)『한국과 일본의 세시풍속과 세시식의 비교연구』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현(2009)「야나기타 민속학의 일본문화일원론 재고: 사령신앙(死靈信仰)과 재앙신(祟り神)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29輯
- 石井研士(2009)『日本人の一年と一生: 変わりゆく日本人の心性』2, 春秋社
- 板橋春夫(1999)「長壽錢の習俗:長壽錢の一面」『群馬文化』第25号
- 新谷尚紀(2003)『民俗学がわかる事典』日本実業出版社
- 立川昭二(1995)『江戸 老いの文化』筑摩書房
- 中村生男(1995)「神と精霊の対立というパラダイム」『折口信夫の戦後天皇論』法藏館
- 中山太郎(1942)『編著校註諸國風俗問状答』東洋堂
- 長野市立博物館(編)(1994)『まつるふさぐもやす一道祖神祈りとかたち』長野市立博物館
- 宮家準 (1980)『生活の中の宗教』日本放送出版協会.
- 宮田登(2006)『冠婚葬祭』岩波書店
- 中村生雄(2001)『祭祀と供犠—日本人の自然観・動物観』法藏館
- 福田アジオ(1991)『柳田國男の民俗学』吉川弘文館
- 柳田国男(1998)『先祖の話』『柳田国男全集』15, 筑摩書房
- 和歌森太郎(1959)『年中行事』至文堂
- 郷田洋文(1959)「厄年・年祝い」『日本民俗体系 4』平凡社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하라이(祓い)의 일본민속 고찰

- 세시풍속과 액년(厄年) 의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하라이(祓い)란 일본에서 부정을 없애는 정화의식 등으로 통용되는 일본어이다. 본 고에서는 하라이 의례가 일본민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세시풍속'과 '일생의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두 개념의 관계에 주목한 이유는 기존의 '도작(稻作)농경' 중심의 민속학적 개념에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었다. 본고의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일본 세시풍속에서는 농사를 위한 의례가 아니라 잡귀(雜鬼)를 퇴치하여 재액(災厄)을 방지하기 위한 의례가 상당히 많다. 둘째 일본의 일생의례에는 전통적으로 유아, 성년, 장년, 노년 등 연령축하 행사가 많다. 여기에도 재액예방과 건강기원 관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셋째 야쿠도시(厄年)의 의례가 세시풍속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일본의 세시풍속의 내용 속에는 농경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의 건강과 관계하는 성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기존의 '도작농경' 중심의 민속학적 개념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nvestigation on Japanese Folklore “Harai”

In this article, it was investigated in the relationship with seasonal customs and lifetime ceremony to figure out in which form this Harai had been actually existing in Japanese folklore. A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first, among the Japanese seasonal customs, there were considerably many rituals that were not ceremonies for agriculture but rituals to prevent calamity by casting out evil spirits. Second, among Japanese lifetime ceremonies, there are traditionally many age-celebration events for childhood, adulthood, late middle age and old age. These are also based on the concept of calamity prevention. Third, the fact that the ceremony of calamity year ‘Yakudosi’ had been conducted as an seasonal customs was brought into the attention. In other words, it implies that, in the content of Japanese seasonal customs, a characteristic related only to individual health but irrelevant to agriculture was absolutely existing. This fact may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reexamine the existing folkloristic concept which focuses on ‘rice farming agriculture’.